

臺樣式的歷史的發達過程 및 特徵에 關한 研究

金榮淑* · 安啓福**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大學院 環境科學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造景學科 副教授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Development Pattern of 『DAE(A Kind of Eminence)』 in Korea

Kim, Young-Sook* · Ahn, Gye-Bog**

*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distinguished pattern of Korean 'Da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how the pattern of 'Dae' has been developed and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tern of Korean 'Dae'.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types of 'Dae' (rock in the nature, a 'Dae' built artificially, a structure) were identified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And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Dae' was regarded as:

a mysterious place related with a king, the place where concrete activities of a specific person had occurred in there, and a mountain peak.

2. In the era of Koryo, artificial aspect of 'Dae' were emphasized. In addition, the activities occurred in the 'Dae' took concrete shape by kings.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tern of 'Dae' during Choson Dynasty are:

1) A type of huge flat rock (27.6%), a type of mountain peak and a type of cliff (24.1%), a type of fantastic rock (15.5%), a type of stratified rock (6.9%) were shown.

2) The main activities on 'Dae' were play(遊), observation, and rest.

3) In the viewpoint of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Dae' were found in the mountains, at the top of the mountain peaks, on high hill, on cliffs, at the riversides, and on the

beaches, etc.

4. With consideration on change trend of the number of 'Dae' according to literature(time), the biggest geographical distributions of 'Dae' were shown in Hamkyungdo in middle of 15th century(Saejongsillockjiriji), in Kangwondo in the middle of 16th century(Sinjeongdong-gukyeojiseongram), in Chunrado in middle of 17th century(Donggukyeojiji), and in Kyungsangdo in middle of 18th 19th century(Yeojidoseo, Eubji).

5. Through the whole period of Choson Dynasty,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Dae' had much in Kyungsangdo and Pyungahndo.

I. 序論

韓國傳統造景의 특징은 흔히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양식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데, 臺는 人工建築物과 建築物의 한 類型인 경우도 있지만 自然景觀이 秀麗한 곳에 위치한 바위를 지칭하여 臺라고 命名한 경우가 많아 韓國傳統造景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樣式으로 판단된다. 또한 宮苑, 別墅, 樓亭, 寺刹, 自然(山川)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韓國傳統造景의 樣式을 把握하는데 중요한 主題라고 思料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臺의 성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平臺나 築臺와 같이 人工的으로 쌓은 臺(李奎報), 建築物의 한 가지 類型(樂嘉藻), 그리고 自然에 있는 바위(說文解字)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이와 같이 韓國의 臺는 自然에 있는 바위를 臺라고 지칭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지금까지 文獻上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中國이나 日本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의 臺 樣式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러한 특징을 가진 臺 樣式이 時代的으로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한 기본 자료 조사에 의한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서 臺에 關한 全般的인 概念이 定立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다. 이를 위해서 本 研究에서는 臺에 關련된 古文獻들을 三國時代부터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調查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 研究는 文獻分析을 바탕으로 한 臺의 時代別, 地域別 分類를 통하여 臺의 時代別 變化 趨勢를 把握하며, 또 地理的 分布上의 特徵과 그 原因 究明으로 韓國에서의 『臺』樣式은 어떻게 發展하였으며, 그리고 臺의 樣式的 特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데 그 目的이 있다.

지금까지 臺에 關한 研究를 살펴보면, 金永彬·安啓福(1985)은 文獻調査를 통해 別墅에도 洗心臺, 釣臺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安啓福(1990)은 樓亭에서 八景의 對象地를 지정할 때 觀魚臺, 月臺 등의 臺가 상당수 지정됨을 밝혔다. 閔庚玟(1991)은 臺를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自然景觀에 부여된 臺名과 人工建築物에 부여된 臺名의 두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安啓福(1993)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는 110個所의 臺를 分析資料로 삼아 道別分布의 特徵, 臺가 出現하고 있는 編目分析을 통한 여타 양식과의 關聯性 調査, 臺의 形態에 關한 特徵 分類, 臺에서 일어났던 行態 分析, 그리고 立地類型을 分析하였다.

II. 研究方法

本 研究에서는 三國時代로부터 朝鮮時代에 이

1) 安啓福(1993) "『臺』樣式的 歷史的 發達過程에 關한 研究(Ⅰ)-新增東國輿地勝覽分析을 통한 臺의 概念 分析", 建築歷史研究 2(2), p.34.

르기까지 대표적인 地理誌를 중심으로 臺 樣式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韓國의 臺 樣式이 어떠한 것인가를 古文獻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시대적 범위를 三國時代로부터 朝鮮時代로 하고, 各 時代의 地理誌에 나타나는 臺를 모두 調査하고자 한다. 地理誌는 일정한 지역내에 분포하는 시간적, 공간적, 자연적, 인문적 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록이므로 지역별로 조성되었던 조경문화의 고찰에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²⁾라 할 수 있다. 地理誌에는 編目別로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山川, 形勝, 樓亭, 古蹟, 佛宇 등이 廣範圍하게 수록되어 있어 臺 樣式을 밝히는데 直接的인 資料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三國時代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高麗時代는 高麗史와 高麗史地理志를 分析資料로 삼았다. 그리고 朝鮮時代는 朝鮮時代に 刊行되었던 地理誌 중에서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邑誌를 選定했는데 그 이유는 이 地理誌들이 官選地理誌이면서 地理的 範圍가 全國의이고 또 1450年代 부터 약 100餘年마다 刊行되었기에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文獻分析시 編目 아래 小題目으로 적힌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 文章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文獻分析시 「○○臺」라고 기록된 것을 조사하다보니 將臺나 烽臺 등과 같이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된 臺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將臺와 烽臺는 臺의 세가지 類型 가운데 하나로 판단되는 바 우선 將臺는 장수의 지휘소로서 성곽 안팎에 많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築臺 위에 건물을 올린 형태로서 建築物의 한 類型에 속하고, 烽臺는 산 위에 돌을 쌓아올린 築臺의 형태인데 긴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烽燧를 올리던 곳이다. 따라서 將臺와 烽臺는 기록된 횟수나 선조들이 이미 “臺”라고 지칭한 것에서 하나의 樣式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臺의 樣式 가운데

하나의 細部 類型으로 판단하여 이를 포함시켜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分析資料目錄은 <표 1>과 같다.

<표 1> 臺 分析 文獻目錄(地理誌)

文 獻 名	編 著 者	年 代
三 國 史 記	金 富 弼	1145
三 國 遺 事	一 然	1283
高 麗 史	鄭 麟 趾	1454
世宗 實錄 地理志	鄭 麟 趾	1454
新增 東國輿地勝覽	李 荇 等	1531
東 國 輿 地 志	?	1659~1674
輿 地 圖 書	徐 命 膺	1759
邑 誌	-	1871~1899

本 研究에서는 첫째, 文獻別, 時代別, 地域別, 編目別 臺의 目錄表를 작성한 후 그 기본 資料를 가지고 三國時代로부터 朝鮮時代に 이르기까지 臺의 總數를 파악하며, 또 시대별 臺의 변화추세 분석 및 변화 요인을 분석하므로써 臺의 歷史的인 發達過程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臺의 樣式的 特徵을 究明하고자 分析資料는 일단 臺에 관한 資料가 너무 방대하므로 時代의으로 보아서 臺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19C의 文獻(邑誌) 가운데에서 慶尙道邑誌(1832~1899)를 選定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19C에 들어와서 전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은 1871年, 1895年, 1899年등 세차례 있었으나 慶尙道 地方은 1832年에 작성된 <慶尙道邑誌> 全秩이 남아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읍지편찬이 한차례 더 있었고, 慶尙道の 71邑이 전부 수록되어 있어 史料的 價値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他道에 비해 臺의 기록이 월등히 많아 臺 樣式을 究明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慶尙道邑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臺가 출현하고 있는 編目分析을 통해 他樣式과의 關聯性을 調査하고, 또한 形態的, 行態的, 立地的 측면에서 臺를 分析하여 臺의 樣式的 特徵을 究明하고자 한다.

2) 전영옥·양병이(1994) “조선시대 한양에 조성된 官營의 蓮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2), p. 55.

Ⅲ. 結果 및 考察

1. 歷史的 發達過程

1) 韓·中·日의 比較

우리나라의 臺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高句麗 東明聖王 10年(B.C. 28) 9월에 난새³⁾가 王臺에 모여들었다⁴⁾는 것이며, 中國은 周나라 초기(B.C. 1029~771년)에 지금의 陝西省 西安市의 남쪽 澧水지방에 도성을 축조할 당시, 못을 파고 그 흙으로 靈臺를 쌓아 낮에는 주위 경관을 조망하고 밤에는 明月을 감상하였다⁵⁾는 기록이 가장 앞서고, 日本의 경우는 應神天皇 22年(291) 3月條 丁酉(14일)에 '높은 臺에 올라 멀리 바라보았다'라는 기록이 최초⁶⁾이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문헌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臺에 관한 기록은 中國, 韓國, 日本의 순으로 中國이 가장 먼저 앞선다.

2) 三國時代의 臺

三國時代의 臺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三國時代는 첫째 王에 얽힌 신비스런 장소(利見臺, 自溫臺)와 特定人物의 具體的인 行態가 일어났던 곳(射臺, 西臺), 둘째 人工的으로 쌓은 築造物(瞻星臺, 射臺), 세째 建築物(臺樹⁷⁾, 樓臺), 네째 自然에 있는 바위(政事巖:天政臺, 龍巖:釣龍臺)나 돌(煖石:自溫臺), 그리고 산봉우리(東臺·西臺·中臺·南臺·北臺)를 臺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두고 볼 때 이미 三國時代에 臺의 3가지 類型 즉 自然에 있는 바위, 建築物의 한 類型, 그리고 平臺나 築臺와 같이 人工的으로 쌓은 臺가 모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三國史記의 臺에 關한 資料

年	代	內	容
高句麗	東明聖王 B.C. 28	十年 秋九月	鷲集於王臺
百濟	比流王 320	十七年 秋八月	築射臺於宮西 每以朔望習射
百濟	阿莘王 398	九月	集都人習射於西臺
百濟	蓋鹵王 475	卽於其內	作宮室樓閣臺榭無不壯麗
新羅	崔致遠 857-?	遺遠自故	營臺榭 植松竹 杖籍書史 嘯詠風月
新羅	弓 裔 905	天祐二年乙丑 入新京	修耳觀樓臺 窮奢極侈

〈표 3〉 三國遺事의 臺에 關한 資料

條	臺名	內	容
善德王의 知幾三事	瞻星臺	是王代 鍊石築瞻星臺	
萬波息笛	利見臺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	
南扶餘	政事巖	又虎岩寺有政事岩 國家將議宰相	
前百濟	(天政臺)	…上有印跡者爲相 故名之	
北扶餘	龍巖	又泗沔河邊有一岩 故岩上有龍跡	
(巴見上)	釣龍臺	因名龍岩	
(自溫臺)	煖石	又泗沔崖又有一石 可坐十餘人	
	(自溫臺)	其石自煖 因名煖石	
東臺			
臺山五	西臺	…東臺滿月山…南臺麒麟山…西臺長嶺山	
	中臺		
萬眞身	南臺	…北臺象王山…中臺風盧山赤名地盧山	
	北臺		

* 朝鮮時代의 地理誌인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邑誌에는 天政臺, 釣龍臺, 自溫臺로 나타난다.

3) 高麗時代의 臺

〈표 4〉와 〈표 5〉에 나타난 高麗時代의 臺에 관한 내용은 첫째, 高麗時代는 玉石을 갈아 歡喜臺와 美成臺를 쌓은 것으로 보아 人爲的인 면이 강조된 시기로 보인다. 둘째, 高麗時代는 臺에서 일어난 行態가 王이라는 特定人物에 의해 多樣하게 具體化된 시기로 把握된다.

三國時代 臺에 관한 기록의 특징을 보면 特定

3) 鷲

4) 金富軾, 三國史記(李丙燾 譯註, 三國史記 上, 서울: 乙酉文化社, 1983, p. 261), 1145.

5) 閔庚球, 韓國庭苑文化-意匠 및 技法論-(서울: 藝耕出版社, 1991), p. 277.

6) 『日本書紀』神代下 제10단 一書(1)條에 "...樓臺壯麗"라는 기록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年代推定이 불가능하므로 應神天皇 22年(291) 3月條에 관한 기록을 최초로 보았다.

7) 上原敬二, 園亭·ベンチ(東京: 加島書店, 1972), pp. 4-27에 臺는 臺에 屋이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臺榭라는 用語는 臺(臺臺)와 그 위의 建物 즉 臺+建築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臺榭를 건축물의 경우로 보는 것이다.

<표 4> 高麗史의 臺에 관한 資料

年 代	臺 名	內 容
穆 宗 1002	高 臺	築高臺而作深池 資遊賞
文 宗 1073	龜 臺	…遂置酒于龜臺 太子諸王宰樞侍宴夜乃還
肅 宗 1104	臺 榭	壬子 王與內中遊覽臺榭園·[園]
睿 宗 1113	臺 榭	置花園二字宮南西…王起臺榭峻垣增…
睿 宗 1115	淸心臺	…純福殿淸心臺 置酒與近臣論文至曉乃罷
毅 宗 1157	歡喜臺 美成臺	磨玉石 築歡喜美成二臺…
忠烈王 1285	望月臺	…王夢先祖遊望月臺 乃命奉樂于臺
忠惠王 1330	龍虎臺	…王從至龍虎臺拜辭帝賜衣慰諭

<표 5> 高麗史地理志의 臺에 관한 資料

所 在 地	臺 名	內 容
忠淸道 扶餘郡	天政臺	…有天政臺釣龍臺…
	釣龍臺	
慶尙道 慶 州	瞻星臺	瞻星臺新羅善德女王所築
慶尙道 禮 州	觀魚臺	…有觀魚臺…
慶尙道 金 州	招賢臺	招賢臺在州東 世傳駕洛國居登王登此臺招 七點山 品始仙人 品始乘舟而來 因名焉
慶尙道 合浦縣	月影臺	月影臺高麗陸莞浦鄉爲縣
咸鏡道 甲州府	奉天臺	…有奉天臺在惠山東
平安道 平壤府	乙密臺	乙密臺在錦繡山頂…

人物의 具體的인 行態(比流王-習射, 都人-習射)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록들이 說話의 人 要素를 많이 띠고 있었다. 그러나 高麗時代에 들어서면 王이라는 신분을 가진 特定 人物의 行態가 臺라는 장소에서 다양하게 具體化(臺榭⁸⁾-遊覽, 高臺-遊賞, 龜臺·淸心臺-酒宴, 龍虎臺-拜辭)되었음이 기록에 나타났다.

4) 朝鮮時代의 臺

(1) 朝鮮時代 臺의 時代別 變化 趨勢 및 地理 的 分布 分析

가. 時代別 變化 趨勢 分析

<표 6>은 朝鮮時代 地理誌에 나타난 文獻別(時代別) 臺의 數 및 각 文獻別(時代別)로 새롭게 기록된 臺의 數를 조사하고 아울러 별도로 軍事 關聯 臺의 數만을 조사하여 만든 것이다.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文獻別(時代別) 臺의 數的인 變化를 살펴 보면, 1400年代(世宗實錄地理志)에서 부터 1500年代(新增 東國輿地勝覽)를 거쳐 1600年代(東國輿地志)까지 臺의 數는 각각 106, 112, 154個所로 비교적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700年代(輿地圖書)에 들어서면 414個所로 다소 증가하다가 1800年代인 邑誌에 들어서면 1023個所가 기록되고 있어 급격한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朝鮮時代 文獻別 臺의 數 및 새롭게 기록된 臺의 數와 軍事 關聯 臺의 數

地 理 誌(編 纂 年 代)	臺 數	새롭게 기록된 臺의 數	
		臺의 數	軍事 關聯 臺 個所 占有率
世宗實錄地理志 (1454)	106	106	85 (80.2%)
新增 東國輿地勝覽 (1531)	112	93	1 (1.1%)
東國輿地志 (1659-1674)	154	70	4 (5.7%)
輿地圖書 (1759)	414	319	120 (37.6%)
邑誌 (1871-1899)	1023	640	349 (54.5%)

그리고 文獻別(時代別)로 새롭게 기록된 臺의 數를 살펴 보기 이전에 이 숫자들은 절대적인 의미가 없음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각 文獻들은 時代別로 편찬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東國輿地志의 경우 全國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용은 가장 간단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상세 정도가 덜하다. 文獻別로 새롭게 기록된 臺의 數를 살펴 보면, 우선 1400年代(世宗實錄地理志)는 106個所의 臺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1500年代에는 93個所가 기록되어 있고 1600年代에 들어서면 70個所로 1500年代에 비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700年代(輿地圖書)에 들어서면 臺의 數가 현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1800年代(邑誌)에 들어서면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700年代와 1800年代에 臺의 數가 급격히 증가하는 原因중에 가장 큰 要因은 軍事 關聯 臺가 많이 기록된 까닭이다. 여기에서 軍事 關聯 臺라는 것은 烽臺(烽燧臺)⁹⁾, 將臺¹⁰⁾, 烟臺¹¹⁾ 등 軍事上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臺를 말한다. <표

8) 肅宗 때의 臺榭에 관한 기록
9) 언락이 편리한 고지에 봉수를 올리던 臺
10) 성·보·둔·술(戊) 등지에 높게 쌓아 올린 장수의 지휘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00年代에 나타난 軍事 關聯 臺는 120個所로 輿地圖書에 出現하고 있는 319個所의 臺 가운데 약 38%를 차지하고 있고, 1800年代에는 軍事 關聯 臺가 54.5%나 된다. 이와 같이 軍事上의 目的으로 사용되는 臺의 숫자가 1700年代에 와서 急增하는 이유는 倭亂(1592)과 2차례에 걸친 胡亂(1627, 1636) 등의 戰爭을 겪고 난 후 外勢의 침략에 대한 國防력의 강화에 주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1800年代에 들어와서 軍事 關聯 臺가 1700年代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增加하고 있는데 이는 丙寅洋擾(1866), 辛未洋擾(1871) 등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구 열강의 침략적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군사력 강화와 外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判斷된다.

이와 같은 資料를 통해서 臺樣式的 最盛期를 數的인 增加 側面에서 본다면 19C로 보는 것도 妥當할 것이다.

나. 地理的 分布 分析

A. 道別 分布

臺의 地方別 分布는 時代別 地域別로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年代別(文獻別) 道別 臺의 特徵을 <표 7>에서 살펴 보면, 우선 朝鮮初期인 1400年代(世宗實錄地理志)에는 咸鏡道의 臺의 數가 62

<표 7> 年代別(文獻別) 道別 臺의 數

道別 年代	京畿道	忠清道	全羅道	慶尙道	江原道	黃海道	咸鏡道	平安道
1400	0	4	0	12	1	1	62	26
1500	8	15	22	20	23	5	7	12
1600	14	18	37	17	29	4	13	22
1700	31	38	53	111	42	22	20	97
1800	135	70	129	336	82	20	68	198

11) 연기를 올려 신호를 보내던 臺

12) 읍루(挾婁)의 남쪽, 곧 함경도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고조선(古朝鮮)의 한 부족. 또, 이 족속들이 세운 나라. 남옥저·동옥저·북옥저 등이 있었으며, 모두 고구려 제6대 태조왕(太祖王) 때부터 고구려에 신속(臣屬)하였는데 사회·풍속·제도 등이 고구려와 흡사하였음. 협의로는 남옥저만을 일컫음.

13) 여진(女眞) 말갈(靺鞨)의 전신으로, 일찍부터 만주 목단강(牧丹江) 유역과 연해주(沿海州) 방면에 퍼져 살던 퉁구스(Tungus族). 식신(息慎)·주신(珠申)·직신(稷慎).

14) 韓國學文獻研究所, 邑誌十三 咸鏡道(서울:亞細亞文化社, 1986), 解題 p. 3.

15) 閔丙河, 韓國史大系-高麗(서울:三珍社, 1973), pp. 81-84.

個所나 되어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朝鮮 中期(新增東國輿地勝覽)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臺가 地方別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 地方別로 臺가 모두 나타나기 시작하는 1500年代(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江原道에 臺가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었다. 1600年代(東國輿地志)는 全羅道가 가장 많이 기록된 道로 나타났다.

朝鮮 末期에 들어오면 우선 1700年代(輿地圖書)에는 慶尙道에 臺가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었다. 1800年代(邑誌) 역시 1700年代(輿地圖書)와 마찬가지로 慶尙道에 臺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朝鮮 末期에는 慶尙道와 平安道에 臺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時代別 分布 要因

本章에서는 臺의 地理的 分布上의 要因을 時代別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朝鮮 初期인 1400年代(世宗實錄地理志)는 咸鏡道에 臺가 가장 많았는데 咸鏡道에 나타난 62個所의 臺 가운데 1個所의 臺를 제외한 모든 臺가 烟臺이었다. 咸鏡道는 원래 沃沮¹²⁾의 故土였고, 그후 肅慎¹³⁾, 高句麗의 疆域을 이루어 왔다.¹⁴⁾ 그리고 新羅 末期 高麗 初期에 女眞이 咸鏡道 일대에 한동안 산재해 살며 高麗에게 토산물을 바치고 혹은 귀화해 오기도 하였다. 이후로 女眞의 세력이 강력해지자 그들과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어 高麗 睿宗은 尹瓘으로 하여금 女眞을 정벌케 한 일이 있었다.¹⁵⁾ 그리고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北方의 근심이 되어 오더니 1433年(世宗 15)에 會寧의 추장 猛哥帖木兒(명거터물)의 부자가 兀良哈(오랑캐)에게 죽었음을 기화로 金宗瑞를 咸吉道都節制使로 삼아 女眞의 세력을 몰아내고 鍾城·穩城·會寧·富寧·慶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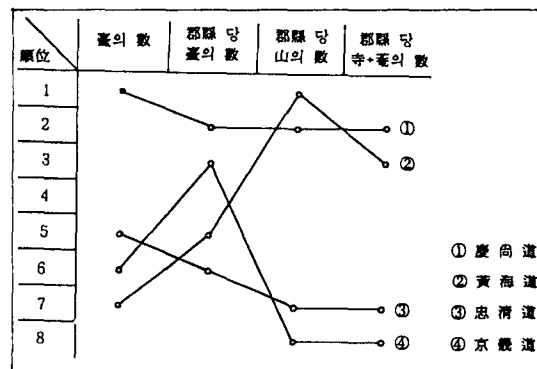
慶興 등의 六鎭을 개척하였다.¹⁶⁾ 이러한 배경하에서 咸鏡道는 女眞에 대한 北方의 防禦가 필요했기 때문에 군사관련시설인 烟臺¹⁷⁾가 많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朝鮮 中期는 우선 1500年代(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江原道에 臺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江陵大都護府의 鏡浦臺, 許李臺, 杆城郡의 茂松臺, 三陟都護府의 凌波臺, 襄陽都護府의 秘仙臺와 같이 海岸에 있는 것이 많고 또 淮陽都護府의 金剛臺, 白雲臺와 같이 금강산, 설악산등 山岳景觀이 뛰어난 곳에 臺가 많았던 까닭으로 판단된다.¹⁸⁾

1600年代(東國輿地志)는 全羅道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러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東國輿地志에 나타나는 全羅道 지방의 37個所의 臺를 대상으로 出現 編目別로 調査하였다. 그 결과 寺刹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그 당시 全羅道 지방이 他道에 비해 절(寺)과 菴¹⁹⁾이 월등히 많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즉 光州牧의 十臺²⁰⁾, 長城都護府의 藥師臺²¹⁾, 茂長縣의 滿月臺²²⁾와 같이 절(寺)과 菴 주변에 臺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700年代는 慶尙道에 臺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17C 이후 黨爭과 土禍등의 여러가지 社會的 要因에 의해서 漢陽 中心의 儒敎文化가 地方으로 分散되면서(특히 嶺南地方) 地方 儒敎文化 形成을 보게 되었는데²³⁾ 이와 같이 儒敎文化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도 1)에서와 같이 慶尙道는 臺 뿐만 아니라 山 그리고 절(寺)+菴의 數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黃海道에는 臺가 적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도 1)에서 보듯이 이 지방은 山

그리고 절(寺)+菴의 數는 비교적 많지만 臺의 數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도 1)을 통해서 京畿道는 郡縣당 山 그리고 절(寺)+菴의 數는 적는데 臺의 數는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輿地圖書에 나타나는 京畿道 지방의 31個所 臺를 대상으로 出現 編目別로 조사한 결과 古蹟조에 出現頻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京畿道는 1700年代 以前에 있었던 臺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 1)을 보면 忠淸道는 郡縣당 山 그리고 절(寺)+菴의 數도 많지 않고 또한 臺의 數도 많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 1) 輿地圖書의 郡縣당 臺의 數와 重要編目과의 比較를 통해 나타난 道別 特徵 (代表的事例)

2. 臺樣式 分析

이미 先行研究²⁴⁾에서 朝鮮初期의 文獻(新增東國輿地勝覽)을 대상으로 臺라는 기본적인 樣式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臺 樣式을 朝

16) 李載 樂 · 柳永烈, 韓國史大系 - 朝鮮前期 - (서울: 三珍社, 1973), p. 37.

17) 慶源都護府 8個所, 會寧都護府 13個所, 鍾城都護府 8個所, 穩城都護府 15個所, 富寧都護府 5個所, 慶興都護府 6個所, 三水郡 6個所.

18) 安啓福(1993) 前掲論文, pp. 27-28.

19) 全羅道: 322個所, 忠淸道: 253個所, 平安道: 218個所, 京畿道: 201個所, 黃海道: 200個所, 慶尙道: 156個所, 江原道: 123個所, 咸鏡道: 85個所.

20) 送下臺, 廣石臺, 風穴臺, 藏秋臺, 青鶴臺, 松廣臺, 楞嚴臺, 法華臺, 說法臺, 隱身臺. 모두 主峯寺 곁에 있다.

21) 藥師菴 북쪽에 있다.

22) 攄率菴 북쪽에 있다.

23) 安啓福(1990), "樓閣 및 亭子樣式을 통한 韓國傳統庭園의 特性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 32.

24) 安啓福(1993), 前掲論文.

鮮時代 全期間에 걸쳐 재입증한다는 차원에서 朝鮮時代 地理誌 가운데 朝鮮 末期에 해당되는 慶尙道邑誌²⁵⁾를 選定해서 臺의 樣式的 特徵을 밝히 고자 한다.

慶尙道邑誌에는 336個所의 臺가 출현하고 있다. 이 資料를 통하여 慶尙道邑誌에서 臺가 出現 하고 있는 編目分析을 통한 여타 양식과의 關聯性 調査, 臺의 形態에 關한 特徵 分類, 臺에서 일 어났던 行態, 그리고 立地類型을 分類함으로써 臺 樣式을 究明하고자 한다.

1) 他樣式과의 關聯性

出現編目を 통한 他樣式과의 關聯性을 분석하 기 위하여 慶尙道邑誌에 나타나는 336個所의 臺를 대상으로 出現 編目別로 조사하여 만든 표가 <표 8>이다.

慶尙道邑誌의 41개 編目²⁶⁾ 가운데 臺가 17編目 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표 8>을 통해 알 수 있는데 臺가 출현할 수 없는 建置沿革, 郡名, 官職, 姓氏, 風俗, 戶口, 田賦, 軍額, 堤堰, 場市, 土 産, 進貢, 棒廬 등의 編目を 제외시켜 보면 臺가 위치하는 바가 상당히 폭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각 編目에 나타난 臺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樓亭조에 18.3%, 形勝조에 14.2%, 古蹟과 山川조에 각각 13.7%와 13.5%로 나타나 이 4編目이 전체 編目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樓亭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安啓福(1993)이 밝힌 바와 같이 樓亭과 개념상 유사한 점(건축물의 일종, 樂嘉藻)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形勝과 山川조에도 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形勝과 山川조에 기록된 臺는 자연 의 경승지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古蹟

<표 8> 臺의 出現編目

編目	個所(%)	事 例
樓亭	72(18.3)	體泉郡 仙夢臺
形勝 ^{*)}	56(14.2)	彥陽縣 盤龜臺
古蹟	54(13.7)	慶州府 瞻星臺
山川	53(13.5)	豐基郡 鳳凰臺
題詠	37(9.4)	寧海府 觀魚臺
佛宇 ^{**)}	35(8.9)	晉州牧 坐高臺
烽燧	31(7.9)	泗川縣 鞍站山烽臺
學校	13(3.2)	泗川縣 大觀臺
碑板	10(2.4)	寧海府 望鄉臺
公廡 ^{***)}	6(1.5)	金海府 咸遠臺
城池	6(1.5)	星州牧 東西將臺
人物	6(1.5)	尙州牧 自天臺
軍器	5(1.3)	長鬐縣 烟臺
島嶼 ^{****)}	3(0.8)	迎日縣 大嶼臺
坊里	3(0.8)	星州牧 洗塵臺
壇廟 ^{*****)}	3(0.8)	東來府 將臺
關防	1(0.3)	梁山郡 臨鏡臺
計(%)	394(100)	

* 형승: 지세나 풍경(風景)이 뛰어난
 ** 불우: 慶尙道邑誌에는 佛宇 혹은 寺刹로 기록되어 있다. 辭典의 定義를 보면 寺刹은 절을 말하며 佛宇는 불당(佛堂:부처를 모신 대청)을 일컫고 있어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
 *** 공해: 관가(官家) 소유의 건물. 공청(公廳).
 **** 도서: 크고 작은 섬들
 ***** 단묘: 신주를 모셔둔 집

조에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은 本文獻 以前의 文獻에도 臺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이 題詠으로 9.4%이다. 題詠조에 臺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先人들이 臺에 관한 詩歌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佛宇조가 그 다음으로 8.9%의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佛宇조에 臺가 출현한다는 것은 경 관 좋은 산속과 같은 곳에 寺刹이 입지하는 경우

25) 韓國學文獻研究所, 邑誌一 慶尙道(서울:亞細亞文化社, 1982), pp. 3-1000.
 韓國學文獻研究所, 邑誌二 慶尙道(서울:亞細亞文化社, 1982), pp. 3-814.
 韓國學文獻研究所, 邑誌三 慶尙道(서울:亞細亞文化社, 1982), pp. 3-844.
 韓國學文獻研究所, 邑誌二十 慶尙道(서울:亞細亞文化社, 1982), pp. 3-1157.
 26) 慶尙道 邑誌에는 각 郡縣別로 編目名이 同一하지 않아 내용상 類似한 編目이라고 인정되는 編目끼리 묶어서 다음의 編目名으로 分類하였다. 즉 建置沿革, 郡名, 官職, 姓氏, 山川, 風俗, 坊里, 戶口, 田賦, 軍額, 城池, 林藪, 倉庫, 學校, 關防, 鎮堡, 烽燧, 壇廟, 陵墓(塚墓), 佛宇, 公廡(官室), 樓亭, 道路, 橋梁, 島嶼, 軍器, 堤堰, 場市, 驛院, 牧場, 形勝, 古蹟, 土産, 進貢, 棒廬, 宦蹟, 科擧, 人物, 題詠, 碑板, 冊板등 41개 정도의 編目으로 分類하였다.

가 많으므로 사찰 주변 지역에 臺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밖에 壇廟, 學校, 烽燧, 城池, 公廡, 軍器조에서도 출현하고 있는데 대부분 人爲的으로 쌓은 것이거나 建築物의 한 類型에 속하는 것이었다. 以外에도 關防, 島嶼, 坊里, 人物, 碑板등에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三國時代에 있었던 臺의 3가지 類型 즉 自然에 있는 바위, 建築物의 한 類型, 그리고 平臺나 築臺와 같이 人工的으로 쌓은 臺가 朝鮮時代 末期에 이르러서도 모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形態的 特徵

〈표 9〉 形態的 特徵 分類^{a)}

特 徵	出現回數(%)	代 表 的 事 例
盤 石	16(27.6)	順興府 彈琴臺: 有石特立溪心上面平廣可坐數十人
峰 狀	14(24.1)	順興府 紫霞臺: 石峰峭聳上可坐數十人
絕 壁	14(24.1)	安義縣 滿月臺: 絕壁斗起千仞三面如削下臨無地
奇 岩	9(15.5)	東萊府 五倫臺: 在府北十五里川巖奇異
層 岩	4(6.9)	順興府 玩瀑臺:層岩作臺面面可坐
其 他	1(1.8)	慶州府 瞻星臺: 練石築臺上方下圓高十九尺
計(%)	58(100)	

^{a)} 臺의 형태적 특징이 나타나 있는 42個所 자료를 분석하여 특징 58가지를 분류한 것임.

〈표 9〉를 통하여 臺의 형태적 특징은 상당부가 평평하여 여러명이 앉을 수 있겠다고 기록된 盤石型이 27.6%로 나타났다. 솟은 봉우리 형상을 하고 있는 峰狀型和 絕壁型이 각각 24.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세가지 유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5.8%이므로 臺의 형태적 특징은 盤石型, 峰狀型, 絕壁型이 主流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기이하게 생긴 돌(奇岩型)이 15.5%로

나타났고, 層을 이루고 있는 돌(層岩型)이 6.9%로 나타났다.

朝鮮 初期(新增東國輿地勝覽)의 臺의 形態的 特徵은 盤石型, 峰狀型, 絕壁型의 세 유형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本 研究 結果에서도 臺의 형태적 특징이 朝鮮 初期와 거의 類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朝鮮時代 全期間에 걸쳐 臺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行態的 特徵

〈표 10〉을 통하여 臺의 행태적 특징은 놀이(遊)하였던 곳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휴식하였던 곳이 18.7%, 觀望하였던 곳이 1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특징이 68.0%를 차지하고 있어 臺의 전체적인 행태 특징은 놀이, 휴식, 觀望하였던 곳이라 할 수 있다. 놀이, 觀望, 휴식이란 곧 오늘날 公園(park)의 原形的인 利用行態를 나타내는 행태이다.

古文獻에서 놀이는 遊 혹은 遊賞으로 표현되고 있다. 漆原縣의 景釀臺는 高麗時代 李仁老가 遊했던 곳이고, 梁山郡의 臨鏡臺는 新羅 崔致遠이 遊賞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文獻上에서 휴식은 逍遙, 憩, 息, 休息등의 한자로 표현되고 있다. 漆谷의 釣魚臺와 觀魚臺는 鄭寒岡이 逍遙하던 곳이고, 聽琴臺는 琴齊 姜漢이 休息하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관망에 관계되는 행태는 문헌상에서 望(바라봄), 觀(봄), 覽(두루살펴봄), 候(상황을 살펴봄) 등의 한자로 표현되고 있다. 天秀臺에서는 '四方이 바라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政丞臺는 尙震²⁸⁾과 丁玉亨²⁹⁾이 安胎使로 縣을 지나갈 때 臺에 올라 두루살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이와 같이 臺에서는 주로 놀이, 휴식, 觀望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以外에도 講學(3回), 送別(2回), 相別, 嘯咏(2回), 來會,

27) 安啓福(1993) 前撰論文, p. 34.

28) 조선 왕조 明宗 때의 相臣[1493~1564]

29) 조선 왕조 中宗 때의 文臣[1486~1549]

<표 10> 行態의 特徵 分類*)

特 徵	出現回數(%)	代 表 的 事 例
놀이**)	28 (37.3)	漆原 景讓臺: 高麗李仁老常遊于此 梁山 臨鏡臺: 崔致遠遊賞之地
휴식***)	14 (18.7)	漆谷 釣魚臺 觀魚臺: 鄭寒岡逍遙之地 山淸 聽琴臺: 琴齊姜漢休息所
관망****)	9 (12.0)	熊川 天秀臺: … 翻作高臺四望… 咸昌 政丞臺: 古相尙震丁玉亨以安胎使過縣登覽
기타*****)	24 (32.0)	梁山 斗淵臺: 郡守李汝翊率諸生講學之處 居昌 鳳凰臺: 文毅公金湜送別於臺上 咸陽 理尋臺: 每日嘯咏於此 醴泉 御史臺: 丁監司允祐…其從子丁好寬 丁好怒…一時來會于此臺 河東 取適臺: 韓惟漢垂釣處 迎日 大嶼臺: 歲旱祈雨 咸安 鳶魚臺: 澗松趙任道藏修之所 尙州 自天臺: 別提蔡得沂隱居
計(%)	75 (100)	

* 臺의 형태적 특징이 나타나 있는 75個所 자료를 분석하여 그 특징들을 분류한 것임
 ** 遊, 遊賞
 *** 逍遙, 息·息, 休息
 **** 望, 觀, 覽, 候
 *****) 講學, 送別, 相別, 嘯咏, 來會, 垂釣, 讀書, 祈雨, 追慕, 藏修, 講道, 避匿, 停, 隱居.

垂釣³⁰⁾, 讀書, 祈雨(3回), 追慕, 藏修(5回), 講道, 避匿, 停, 隱居 등의 행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표 10>에 나타난 代表的 事例의 기록들을 살펴 보면, 郡守 李汝翊이 諸生들을 거느리고 學文을 연구하던 곳인 斗淵臺, 文毅公 金湜이 臺 위에서 송별했던 鳳凰臺, 奉朝賀 李兼常이 귀양살이 할 때 河鱗과 더불어 매일 읊조리곤 했던 理尋臺, 監司 丁允祐의 조카인 丁好寬과 丁好怒가 한때 와서 만나곤 했다던 御史臺, 韓惟漢이 낚시

하던 곳인 取適臺, 가을 때 비를 내려 달라고 빌던 大嶼臺, 澗松 趙任道가 책을 읽고 學文에 힘썼던 곳인 鳶魚臺, 別提³¹⁾ 蔡得沂³²⁾가 隱居하던 自天臺 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多樣한 行態가 可能하였던 곳이 臺라는 장소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立地의 特徵

<표 11> 臺의 立地 類型 分類表*)

類 型		代 表 的 事 例
接 地 型	山 山 上	蔚山 石臺: … 山上有石臺…
	峯 峯 頂	晉州 座高臺: … 峯有石削立其頂載小石如床…
	嶺 嶺 上	蔚山 望洋臺: 在官基東泰嶺上即東海最高之處
	絕 壁 上	梁山 臨鏡臺: … 層岩絕壁之上
接 水 型	灣 抱	東萊 東臺: … 絲川邊巖高三四丈削立灣抱
	海 海 岸	慶州 利見臺: 在府東七十里海岸
	溪 臨 溪	順興 振衣臺: 在山雲東麓石壁陡斷臨溪削立自層臺
	川 川 邊	青松 方臺: 在安德縣北十里川邊
混 合 型	水 中	義興 鶴巢臺: … 有巨石特起水中…
	灘 과 潭	咸陽 瑜珈臺: … 瑜珈臺下有水潛灘上即龍遊潭
複 合		海와 岸, 溪와 岸, 川과 岸, 湖와 岸

* 臺의 22가지 입지적 특성 가운데에서 代表的인 事例만을 選別해서 기록한 것임

<표 11>을 보면 臺의 立地 特性은 山頂부터 海中까지 22가지 정도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안계복(1993)의 분류기준에 따라 接水型의 臺와, 接地型의 臺, 그리고 混合型의 臺로 나누었다. 臺의 立地가 接地型이란 接水型의 反對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用語인데, 臺가 산의 정상부(山頂), 산의 위(山上), 봉우리의 정상부(峰頂), 봉우리 위(峰上), 고개 위(嶺上), 고개 중간(嶺中腰), 절벽 위(絕壁上)에 立地하는 臺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30) 文獻上的 記錄에 垂釣(낚시)의 行態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河東縣의 取適臺 한 個所 뿐이지만 釣魚臺, 釣臺, 觀魚臺, 魚臺, 鳶魚臺(鳶飛魚躍) 등은 垂釣에 關連된 行태가 文獻에 기록되어 있는 으나 臺名稱을 볼때 關連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別提: 조선 왕조 때, 정·종육품(正從六品)에 속한 벼슬.
 32) 조선 왕조 인조·효종 때의 학자. 자는 영이(詠而), 호는 우담(雩潭)·학정(鶴汀).

臺의 立地가 接水型이란 臺가 물의 樣態에 따라 接하고 있는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臺가 물급이를 안고 있거나(灣抱), 혹은 바다·호수·계류·하천·강에 있는 것들을 接水型의 臺로 분류하였다. 混合型이란 接地型과 接水型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바다의 절벽(海岸), 계류의 절벽(溪岸), 하천의 절벽(川岸), 호수의 절벽(湖岸) 등을 이 型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混合型에는 咸陽郡의 楡岾臺처럼 여울물(灘)과 못(潭)이 함께 있는 곳에 위치한 특별한 臺도 있었다.

安啓福(199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臺의 立地特性은 15가지 정도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本 研究에서는 溪岸, 溪邊, 臨溪, 川邊, 江邊, 臨江, 湖岸, 海中등의 입지 특성이 더 나타나고 있어 朝鮮 初期의 臺 樣式이 朝鮮 末期에 들어와서 더욱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C를 臺 樣式의 最盛期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IV. 摘要

本 研究는 韓國의 臺가 中國이나 日本의 臺와는 다른 特徵을 지닌 樣式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觀點下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의 臺樣式은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또 臺의 樣式的인 特徵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目的을 두고, 우선 臺樣式의 歷史的 發達過程을 밝히기 위해서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邑誌를 主 分析資料로 삼았다. 그리고 臺의 樣式的인 特徵을 究明하기 위해 慶尙道邑誌에 出現하는 336個所의 臺를 分析資料로 삼아 他樣式과의 關聯性, 形態的 特徵, 行態的 特徵, 그리고 立地類型을 分析하였다.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本 研究에 의하면 韓國에서의 臺에 관한 最初의 記錄은 高句麗 東明聖王 10年(B. C. 28)에 난새가 王臺에 모여들었다는 것으로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2. 三國時代에 이미 臺의 3가지 類型(자연에 있는 바위, 人工的으로 쌓은 臺, 建築物의 한 類型)이 모두 있었음이 文獻上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三國時代는 王에 얽힌 신비스런 장소와 特定人物의 具體的인 行態가 일어났던 곳, 또 산봉우리를 臺라고 하였음이 기록에 나타났다.

3. 高麗時代는 첫째 人爲的인 측면이 많이 강조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臺에서 일어난 行態가 王이라는 특정 인물에 의해 다양하게 具體化(遊覽, 遊賞, 酒宴, 拜辭)된 시기였다.

4. 朝鮮時代 臺의 樣式的 特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臺는 慶尙道邑誌의 41개 編目 가운데 17編目に 걸쳐 나타나 상당히 폭넓은 關聯性을 갖는 樣式임을 알 수 있었다. 각 編目に 나타난 臺의 出現頻度를 보면 樓亭조에 18.3%, 形勝조에 14.2%, 그리고 古蹟과 山川조에 각각 13.7%와 13.5%로 나타나 전체 編目 가운데 이 4編目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樓亭조에 出現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臺는 建築物의 한 유형으로서 樓亭과 개념상 유사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形勝과 山川조에 出現빈도가 높은 것은 臺가 自然의 景勝地에 위치하는 바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밖의 編目に 나타나는 臺는 인위적으로 쌓은 臺이거나 建築物인 경우가 많았다.

2) 臺의 形態的인 特徵은 상단부가 평평한 盤石型이 27.6%, 솟은 봉우리 형상을 하고 있는 峰狀型과 절벽처럼 되어 있는 絕壁型이 각각 24.1%로 이 세 유형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밖에 기이하게 생긴 奇岩型이 15.5%로 나타났고 층을 이루고 있는 層岩型이 6.9%로 나타났다.

3) 臺의 行態的인 特徵은 주로 놀이, 휴식, 觀望하였던 곳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講學, 送別, 相別, 嘯咏, 來會, 垂釣, 讀書, 祈雨, 追慕, 藏修, 講道, 避匿, 停, 隱居등의 행태도 일부 나타났다.

4) 臺는 22가지의 立地特性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接地型, 接水型, 그리고 混合型의 臺로 나눌

수가 있다. 接地型이란 接水型의 反對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용어로 山頂, 山上, 峯頂, 峯上, 嶺上, 嶺中腰, 絶壁上에 立地하는 臺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朝鮮 初期(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15가지 정도의 立地 特性이 朝鮮 末期(慶尙道邑誌)에 와서는 22가지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臺樣式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9C를 臺樣式의 最盛期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5. 臺 數의 時代別(文獻別) 變化 趨勢를 보면 우선 15C(世宗實錄地理志)는 咸鏡道, 16C(新增東國輿地勝覽)는 江原道, 17C(東國輿地志)는 全羅道, 18C(輿地圖書)와 19C(邑誌)는 慶尙道가 가장 많은 지방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15C는 軍事 關聯 臺가 많이 기록되었고, 16C는 海岸과 山岳景觀이 뛰어난 곳에 臺가 많았고, 17C는 절(寺)과 菴 주변에 臺가 많았고, 18C는 15C와 같이 軍事 關聯 臺가 많이 기록된 까닭도 있고 또한 儒敎文化的 影響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臺의 地理的 分布는 朝鮮時代 全期間을 통하여 臺는 慶尙道, 平安道에 많았다. 慶尙道에 臺가 많은 이유는 이 地方이 儒敎文化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儒敎文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平安道에 臺가 많은 이유는 地理的으로 平安道는 北方의 防禦와 關聯된 軍事的 要衝地帶이므로 軍事上의 목적으로 이용된 臺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慶尙道와 平安道는 臺의 數가 많을 뿐 아니라 山 그리고 절(寺)+菴의 數도 많은 지방으로 나타났다. 黃海道는 臺가 가장 적게 分布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本 研究 수행결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本 研究는 文獻上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臺樣式의 特徵을 形態的, 行態的, 立地的 측면에서 究明한 것이므로 이러한 特徵을 갖는 臺에 대해 現地調査를 實施하여 實際的으로 究明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本 研究에 의해서 韓國의 臺에 關한 特性이 어느정도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나 中·日과의

比較 研究를 통해 그 特性이 確實히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關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參考文獻

1. 金富弼(1145) 三國史記:李丙燾 譯註(1983) 三國史記 上, 서울, 乙酉文化社.
2. 金富弼(1145) 三國史記:李丙燾 譯註(1983) 三國史記 下, 서울, 乙酉文化社.
3. 金永彬·安啓福(1985) "別墅에 關한 研究(Ⅰ)-文獻分析을 통한 別墅概念 및 意味에 關해서-", 曉星女子大學校 研究論文集 第30輯.
4. 閔庚玟(1991) 韓國庭苑文化-意匠 및 技法論-, 서울, 藝耕産業社.
5. 閔丙河(1973) 韓國史大系-高麗-, 서울, 三珍社.
6. 上原敬二(1972) 園亭·ベンチ, 加島書店, pp. 4-27.
7. 徐命膺(1759) 輿地圖書:國史編纂委員會(1979), 輿地圖書 上.
8. 徐命膺(1759) 輿地圖書:國史編纂委員會(1979), 輿地圖書 下.
9. 安啓福(1990) "樓閣 및 亭子樣式을 통한 韓國 傳統庭園의 特性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0. 安啓福(1993) "臺樣式의 歷史的 發達過程에 關한 研究(Ⅰ)-新增東國輿地勝覽 分析을 통한 臺의 概念 分析-", 建築歷史研究 2(2).
11. 李載燾·柳永烈(1973) 韓國史大系-朝鮮前期-, 서울, 三珍社.
12. 李 荇(1530) 新增 東國輿地勝覽:民族文化推進會(1971)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I~VI, 대한공원사.
13.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4. 日本書記(720): 田溶新 譯(1989) 完譯 日本書記, 서울, 一志社.
15. 一然(1283) 三國遺事:李民樹 譯(1988) 三國遺事, 서울, 乙酉文化社.
16. 鄭麟趾(1454) 高麗史: 金鍾權 譯(1975) 高麗史, 서울, 廣智出版社.
17.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上.
18. 韓國學文獻研究所(1983) 全國地理志① 高麗史地理志, 서울, 亞細亞文化社, pp. 29-95.
19. 韓國學文獻研究所(1983) 全國地理志① 世宗實錄地理志, 서울, 亞細亞文化社, pp. 295-662.
20. 韓國學文獻研究所(1983) 全國地理志③ 東國輿地志, 서울, 亞細亞文化社, pp. 22-551.
21. 韓國學文獻研究所(1982) 邑誌·慶尙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1000.
22. _____(1982) 邑誌二 慶尙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814.
23. _____(1982) 邑誌二十 慶尙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1157.
24. _____(1982) 邑誌三 慶尙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844.
25. _____(1983) 邑誌四 全羅道, 서울, 亞細亞文化

- 社, p. 701.
26. _____(1983) 邑誌五 全羅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889.
27. _____(1983) 邑誌六 濟州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423.
28. _____(1985) 邑誌七 忠清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674.
29. _____(1985) 邑誌八 忠清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853.
30. _____(1985) 邑誌九 忠清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532.
31. _____(1985) 邑誌十 京畿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995.
32. _____(1985) 邑誌十一 京畿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727.
33. _____(1985) 邑誌十二 黃海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401.
34. _____(1985) 邑誌十三 咸鏡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700.
35. _____(1986) 邑誌十四 平安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671.
36. _____(1986) 邑誌十五 平安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815.
37. _____(1986) 邑誌十六 平安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815.
38. _____(1986) 邑誌十七 平安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785.
39. _____(1986) 邑誌十八 江原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657.
40. _____(1986) 邑誌十九 江原道, 서울, 亞細亞文化社, p. 432.